

전라도 구석구석 근사한 시간 여행 떠나요



시간여행 시즌 II

남도, 시간속을 걷다

(1) 프롤로그

100년의 역사 해남 유선여관
6·25때 북 공격 피한 나주 노안성당
화가 김환기 생가 신안 읍동마을
80년 된 빵집 순천 화월당
주조장·염전·진도 경양식...

등록문화재 제44호로
지정된 나주 노안성당.



보성군 별교읍 태백산맥 문학거리에
자리한 '보성여관'의 찻집.

만났다. 광주를 거닐다 보니
자연스레 전남 지역에는 어떤 공간들이 있고, 어
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까 궁금해졌다.
'광주, 시간 속을 걷다'의 '시즌 II' 성격으로
계속되는 '남도, 시간 속을 걷다'는 광주를 제외
한 전남 지역 이곳 저곳을 찾아 이야기를 캐낼 생
각이다. 기회가 닿으면 전북 지역까지도 아우를
수 있을 듯하다.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해남 해창 주조장에서
는 서민들의 오랜 벗인 술 만드는 과정을 들을 것
이며 1953년 조성된 신안 증도 태평염전에서는
단일 염전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염
전의 오랜 역사를 더듬어 본다.
등록문화재 제44호인 나주 노안성당도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다. 나주시 노안면 이슬촌길 노
안성당은 90년의 역사를 간직한 곳으로 미국 시
사 주간지 '타임'지에 실렸던 사연이 인상적이다.
6·25 전쟁 당시 북한 군인들이 성당에 불을 지르
려 했지만 언덕 위로 보이는 성당이 붉게 타오르
는 것처럼 보여 그냥 돌아갔다는 이야기다. 노안
성당과 대부분이 천주교 신자인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이슬촌 산타마을 크리스마스 축제'
는 또 다른 볼거리다.
100년 역사를 담고 있는 해남 유선여관 이야
기도 흥미롭다. 당초 대흥사를 찾는 신도나 수도승
들의 객사로 쓰이다 40년전부터 여관으로 운영
되는 유선여관은 유홍준의 '나의 문화유산답사
기'를 통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기도 했다. 또
국악인들이 산공부를 하거나 소리판을 벌였던
공간이자 '천년학', '장군의 아들' 등 영화에도 많
이 등장한 곳이다.
'목포의 눈물'로 유명한 이난영의 흔적을 찾는
여정도 이어진다. 해방 직후부터 운영되던 '목포
약기사'는 이난영과 밀접한 인연을 갖고 있는 공
간이다. 1969년 약기점 주인인 고(故) 박오주씨
가 사재를 털어 유달산에 우리나라 최초의 노래
비 '목포의 눈물'을 세웠고 이난영 탄생 100주년
이었던 지난해에는 대규모 사진 전시회와 음악
회가 여는 등 지속적으로 이난영 추모 사업을

진 행
하고 있다.
한국을 대표하
는 추상화가 '김환기'
의 흔적이 담긴 신안 읍동
마을도 찾아가 본다. 최근 그
림 경매에서 국내 최고가를 계
속 경신하고 있는 김 작가의 생가
와 마을 구석구석을 거닐며 그의 향
취에 취해 본다.

각 지역의 오래된 맛집도 둘러볼 예정
이다. '빵집 순례'에 나서는 이들이 많은
요즘이다. 군산 이성당, 대전 성심당, 광주
궁전제과처럼 각 지역에는 대표 빵집이 있
다. 순천에선 80년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빵
집 '화월당'이 눈에 띈다. 3대가 이어오고 있
는 화월당에 둘러싸인 이야기는 들어 본다.
진도 군민들이면 누구나 추억 하나쯤 갖고
있는 '그냥 경양식'의 돈까스와 비후까스의 맛
은 또 어떨지 군침이 돈다.

지난 2년에 이어 다시 한 번 '시간의 보물창
고'를 열어 본다. 예전과는 비교 할 수 없는
넓은 지역을 발로 더듬을 이번 시리즈에서
만나는 곳들은 취재진부터도 처음 접하는
곳들이라 기대가 된다.

앞으로 이어지는 여정은 독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여정이다. 조금은 먼 나들
이가 될 수도 있는 터라 주변의 또
다른 공간들까지 함께 둘러보면
근사한 '하루 여행'이 되지 않
을까.

이제 남도로 떠나는 시
간 여행이 시작된다.
/김미은기자
mekim@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해남
해창 주조장.
▶1969년 목포 유달산에 세운
'목포의 눈물' 노래비.



신양파크호텔 맞춤 출장파티

교회·성당 웨딩 출장파티, 가족모임, 기업체 등
각종 기념 출장파티를 고객이 원하는 장소와 금액에
신양파크호텔의 연회음식과 분위기를 그대로 옮겨 드립니다.



Shin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

(주) 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Tel. 062-228-4711~2